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멈출 수 없어〉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장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아름다운 정원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화제의 드라마 〈태양의 여자〉(재)	11	00 여름특선드라마 〈탐나는도다〉(재)	00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00 KBS 뉴스 12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일일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재)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걸작선 〈내사랑 금지옥엽〉(재)	10 스타 골든벨(재)	1	40 닥터스 스페셜	00 과학대탐험(재)
00 KBS 뉴스 10 KBS 중계석 아른다운 우리노래	10 KBS 네트워크-대구	2	35 포토에세이 향수	00 SBS 뉴스 10 드라마 스페셜 〈주원장〉
	00 KBS 스포츠 농수산식품부장관기 승마대회	3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00 건강클리닉(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삼국쥐전 40 TV유치원 파니파니	10 꼬꼬마 꿈동산(재) 40 맹꽁서당(재)	4	00 재능 무한대 30 곰탱이와 함께하는 TV동화	00 아기공룡 둘리 30 2009 창작애니메이션대상 수상작 시리즈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소비자 고발(재)	5	00 MBC 뉴스 20 우리집 주치의 365 5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야단법석	25 순천 정원박람회 유치기원 특집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쟁점토론	10 무한지대	7	45 일일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	05 시사터치 따따부따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25 일일연속극 〈다함께 차차차〉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연속극 〈밥 줘〉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 9	00 대결 노래가 좋다 55 수목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뉴스 55 납량특집 미니시리즈 〈혼〉	55 SBS 대기획 〈태양을 삼켜라〉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느티나무		10		
00 KBS 뉴스라인 30 현장르포 동행	05 해피 투게더	11	05 뉴스 후	15 웃음을 찾는 사람들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책 읽는 밤	25 생방송 시사 360 55 느티나무(재)	12	00 MBC 뉴스 24 10 MBC 100분 토론	20 나이트 라인 45 스포츠 중계석

EBS

06:00 EBSe 영어회화 365
06:30 세계테마기행 〈텐산 너머의 낙원, 키르기스스탄〉
07:10 두기랑 스티커여행
07:25 출동 원더펫
07:50 달려라 카카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안녕! 루퍼트
08:30 빠삐에 친구
08:40 키득키득 실험실(재)
08:50 깨미랑 부카채카
09:00 뚜바뚜바 눈보리
09:15 방귀대장 뿡뿡이
09: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35 아무아무 참참
09:45 로켓 보이
10:00 60분-부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임종연의 늦더위를 이기는 우리집 건강 상차림〉
11:30 다큐 프라임 〈원더풀 사이언스〉
12:20 EBS스페이스 공감
13:10 극한 직업
13:40 한국어쇼
14:10 문학사랑 e
14:15 두비두밥 몬스터 하우스(재)
14:35 선물공룡 디보
14:50 작은 녀석들
15:00 아무아무 참참
15:10 방귀대장 뿡뿡이(재)
15:25 알록달록 콩콩이
15:40 몽실몽실 동물마을
15:50 깨미랑 부카채카(재)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치로와 친구들
16:35 달려라 카카(재)
16:45 빨강머리 앤
17:10 수퍼와이
17:35 로켓보이(재)
17:50 〈생방송〉톡! 톡! 보니하니
18:50 빼꼼과 웃기는 녀석들
19:10 아바타 아앙의 전설
19:35 독수리 오형제
20:00 과학실험-사이펀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e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다큐프라임 〈원더풀 사이언스〉
22:40 극한 직업
23:10 하나뿐인 지구
00:00 문학사랑 e
00:05 지식채널 e(재)
00:10 세계의 다큐멘터리 〈무술의 비밀, 과학이 밝히다〉

EBS플러스1

07:00 EBS 포스 〈수학Ⅱ〉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상)〉
08:40 〃 〈수학(하)〉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릭! 사이언스
09:35 TV로 보는 박물관
09:40 EBS 수능 플러스 〈외국어 영역〉
10:30 세계테마기행
11:10 역사극장
12:00 EBS 내신6감 〈수학(상)〉
12:50 〃 〈수학(하)〉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수학(상)〉
14:30 〃 〈수학(하)〉
15:20 EBS 탐스런(재) 〈윤리〉
16:10 〃 〈지구과학Ⅰ〉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윤리〉
17:50 EBS 학습자료실 〈과학사〉
17:55 3분 VOCA
18:00 EBS 포스(재) 〈현대문학〉
19:00 〃 〈수학Ⅱ〉
19:50 EBS 학습자료실 〈수학사〉
19:55 EBS 학습자료실 〈문학사〉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지구과학Ⅰ〉
21:00 EBS 내신 6감 〈생물〉
22:40 EBS 뉴스

EBS플러스2

08:00 EBS TV 중1(2학기) 〈영어〉
08:40 〃 〈과학〉
09:20 EBS TV 중1 퍼펙트 체크업 〈과학〉
10:00 생활속의 보건
10:15 딩동댕 유치원
10:35 알록달록 콩콩이
10:50 달려라 도라라
11:00 일일드라마 〈깡순이〉
12:00 EBS TV 중2(2학기) 〈영어〉
12:40 〃 〈과학〉
13:20 EBS TV 중2 퍼펙트 체크업 (2학기) 〈과학〉
14:00 생방송 방과후 영어
14:40 초등교과 영어
15:00 EBSe 초등영어
16:30 얼쑤! 한국어쇼
17:00 EBS 초등 친절한 선생님 〈과학 3-2〉
17:30 〃 〈과학 4-2〉
18:00 〃 〈과학 5-2〉
18:30 〃 〈과학 6-2〉
19:00 EBS TV 중1(2학기) 〈영어〉(재)
19:40 〃 〈과학〉(재)
20:20 EBS TV 중2 퍼펙트 체크업 (2학기) 〈과학〉
21:00 EBS TV 중2 (2학기) 〈영어〉(재)
21:40 〃 〈과학〉(재)

발라드의 계절 가을, 발라드가 없다

댄스·힙합 음악차트 석권… 음악업계 상업성 떠나 장르 다양화 필요

가요계에서 가을은 발라드의 계절이다. 하지만 요즘 발라드곡으로 가을 복귀를 준비 중인 가수들은 걱정이다.

지난해 시작된 댄스, 힙합곡의 강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수, 음반제작자, 작곡가들은 모두 "발라드의 실종"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4일 각종 음악차트 상위권에는 브라운아이드걸스〈사진〉의 '아브라카다브라'와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을 필두로 투애니원의 '아이 돈트 케어', 카라의 '워너', MC몽의 '인디언 보이' 등 댄스, 힙합곡 일색이다. 모두 빠른 템포에 현란한 댄스곡이다. 9월부터 박효신, 테이, 휘성, 환희 등 발라드 강자들이 복귀를 앞둔 지금, 특정 장르의 '쏠림' 현상은 음악업계의 문제일까, 음악팬들의 편식 때문일까, 의견이 다양하다.

가요 관계자들은 '가난한 음악업계'의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음반을 만드는 만큼, 흥행을 위한 안전성을 담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히트곡을 쓴 작곡가에게 비슷한 스타일의 곡을 의뢰해 특정 장르가 쏠아진다. 비슷한 시기 몇몇 작곡가의 노래가 넘쳐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손담비의 '미쳤어'와 '토요일밤에', 애프터스쿨의 '아(AH)'와 '디바(Diva)' 등을 히트시켜 댄스곡 흐름에 일조한 용감한형제는 "내 음악만 나오는 것이 부담된 적도 있다"며 "음반제작자들은 '누구 곡처럼 써달라'고 요청한다. 작곡가들이 고집대로 만들어도 수정을 통해 음반제작자와 가수의 입맛에 맞춰질 때 '오케이'를 하니 비슷한 곡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반제작자들은 각종 음악차트 순위를 참고할 때 음악팬들이 발라드를 외면하는 듯 보이니, 제작을 기피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다양성 부재는 흥행에 대한 과잉 민감성 때문"이라면서도 "특정 음악이 통하는 트렌드의 잠식 기간은 분명히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발라드 히트곡이 많은 한 유명 작곡가 역시 "특정 장르로 유행이 변하는 흐름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멜로디만 좋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좋은 곡을 만들면 다시 발라드의 유행은 돌아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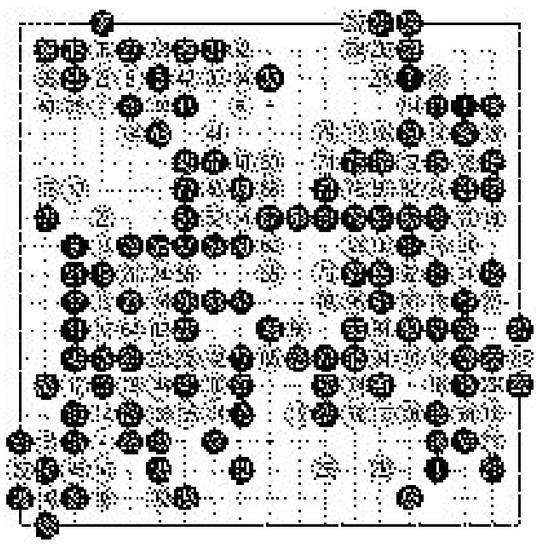
/연합뉴스

제18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이정학 5단, 행운의 승리

3회전 4국 총보 (1~240)

白 이정학 5단 〈변호사회〉 黑 김홍섭 5단 〈포스코〉



이 대국은 아마추어의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김홍섭 5단이 남의 집이 크게 보여 때이르게 흑 25부터 상변을 쳐들어간 것이라든지 이정학 5단이 한집을 없애기 위해 백 42로 찝는 대악수를 두어 흑 대마를 놓친 것은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수없이 경험했을 법한 수 들이다.

상변 흑 대마가 63까지 탈출해서는 흑이 유리한 형국인데 중앙의 전투에서 흑 111로 찝은 수가 대실수로 백 128까지 중앙의 흑 대마가 비명횡사를 당해서는 결정타를 맞았다. 흑 111로는 116에 두어 백 두점을 잡아야 했다.

좌하귀에서 김홍섭 5단이 흑 147, 149로 이단젖히는 초강수도 무위로 돌아가고 이대로 백의 승리로 끝나는가 했으나 이정학 5단은 관중을 의식이라도 하듯 좌상귀를 백 190으로 집어넣어 천지대패를 걸어가는 대모험을 감행한다.

김홍섭 5단이 우변 패를 불청하고 좌상의 백 대마를 잡았더라면 대역전극이 벌어질뻔 했는데 백 대마를 몽땅 잡는다는 생각을 못한 김 5단이 패를 다 받아주는 바람에 천만다행으로 백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백 240 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7일(음 7월 8일 甲辰)

子 36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으니 결말을 좋게 지으라. 48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60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72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84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행운의 숫자 : 05, 43

丑 37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49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61년생 과욕만큼 손재수가 있다. 73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85년생 대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행운의 숫자 : 09, 33

寅 38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50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으나 과시는 금물. 62년생 부부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74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행운의 숫자 : 11, 31

卯 39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1년생 스스로 자파하는 격이요. 63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75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어야. 행운의 숫자 : 12, 28

辰 40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2년생 애인과 이성교재가 있을 수도. 64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76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행운의 숫자 : 17, 27

巳 41년생 전화위복이니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53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5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게 된다. 77년생 촌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손해다. 행운의 숫자 : 21, 16

午 42년생 충의 불편사가 발생하니 주변과 화해하라. 54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호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66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78년생 타에 의한 사연과 손재가 우려 된다. 행운의 숫자 : 01, 44

未 43년생 헛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5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67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9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3, 43

申 44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56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8년생 문서 직업으로 인해서 대고역이 중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80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04, 35

酉 45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57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69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한다. 81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온다. 행운의 숫자 : 08, 41

戌 46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숙고하라. 58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70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82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0, 38

亥 47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59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되리라. 71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83년생 증식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행운의 숫자 : 14, 4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378>

I won't tolerate your fits.

나는 네 변덕을 봐줄 수가 없어.

A : John, come here please.
B : No.
A : John, I said come here.
B : No, I hate you. I don't have to do what you say.
A : OK. you're grounded. I won't tolerate your fits.

A : 존, 이리와.
B : 싫어요.
A : 존, 이리 오라고 말했지.
B : 싫어요, 전 싫어요.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A : 알았다. 넌 외출금지야. 나는 네 변덕을 봐줄 수가 없어.

* ground : (아이를) 외출 금지시키다.
* (감정의) 격발[폭발] : 발작적 흥분, 졸도
: 일시적 기분, 변덕(capric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378>

してどうしたの?

무슨 일 있어?

A : がっかりした表情(ひょうじょう)してどうしたの?
B : 來月の研修旅行(けんしゅうりょこう), 豫算が下(お)りなくて取り止めになったんだって.
A : そう. 殘念だね.

A : 맥빠진 표정으로 무슨 일 있어?
B : 다음 달 연수여행,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중지되었데.
A : 그래. 유감이군.

がっかりする : 실망하다, 낙담하다, 맥이 빠지다
研修旅行(けんしゅうりょこう) : 연수여행
豫算(よさん)が下(お)りる : 예산이 떨어지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55>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A : 您好, 欢迎光临! 您找哪位服务员呢?
nín hǎo, huānyíngguānglín. nín zhǎo nǎ wèi máilàiyuán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누 자오 나 웨이 마이라이위엔)
B : 我是第一次来的。
wǒ shì dì yī cì lái de
(워 쓰 띠 이 츠 라이 더)
A : 这边请, 报抱歉, 现在人多, 请等一等, 好吗?
zhèbiān qǐng, bào bàoqiàn, xiànzài rén duō
qǐng děng yì děng, hǎo ma
(쩌비엔 칭, 빠오 빠오치엔, 시엔짜이 런 뚜오, 칭 덩 이 덩, 하오 마)
B : 好的, 没事。
hǎo de, méi shì
(하오 더, 메이 쓰)

A: 어서 오세요! 어느 미용사 찾으세요?
B: 처음 오는 건데요.
A: 네, 미안하지만 오시죠. 좌석이 만석이 많아서 그런데 좀 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B: 네, 그러죠.

美发师 (měifàshī) 미용사
抱歉 (bàoqiàn) 미안하다 죄송하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1095>

班門弄斧 (반문농부)

나눌 반, 문 문, 희롱할 농, 도끼 부

반문농부(班門弄斧)는 노반의 집 문 앞에서 도끼솜씨를 자랑한다 뜻으로, 실력도 없으면서 잘난 척 함을 비유한다. 여기서 '노반'은 노(魯)나라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공수반(公輸般)이며, 뛰어난 목조 기술을 지닌 유명한 장인(匠人)이다. 어떤 나무토막이든 그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국보(國寶)로 변할 만큼 손재주가 뛰어났다. 하루는 공수반의 집 앞에서 어떤 젊은 목수(木手)가 자신의 작품 몇 점을 가지고 나타나 자랑을 하면서, 도끼를 직접 꺼내 시범을 보였다. 그러자 구경꾼이 이 집이 천하의 명장 공수반의 집이라고 하자, 젊은 목수는 무안해서 머리를 떨 군 채 자리를 뜨고 말았다고 한다.

뒷날 명나라 말기에 매지환(梅之渙)이라는 시인이 아태백(李太白)의 묘비(墓碑) 위에 새겨진 참배객들의 싯구를 보고 불쾌한 마음 반, 안타까운 마음 반으로 자신도 한 수를 적어 넣었다. "채석 강변의 한 무더기 흙 / 이백의 시가 천고에 드높다 / 오가는 사람마다 한 수씩 남겼으니 / 노반의 문 앞에서 큰도끼 자랑하네 [魯班門前弄大斧]."

즉 '반문농부'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재주를 자랑하는 것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